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창립 40주년을 축하하고 부산항 보안체계 등 면밀히 점검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창립 40주년 기념식 참석 및
부산항 국제여객선터미널·여객선 점검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30일(화) 부산을 찾아 16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창립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과 여객선의 안전관리 상황도 점검할 예정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창립 기념식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해양수산업·단체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현직 원장과 임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강 장관은 축사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지난 40년간 해양수산 모든 분야에서 선진 제도 개발과 정책 시행을 든든하게 뒷받침했다.”라며 감사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도 ‘신해양강국 건설’을 목표로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라고 말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이날 기념식을 계기로 지난 40년간의 연구 성과와 국제적인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미래 발전 방향을 담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0년사’를 발간한다.

이어서, 강 장관은 부산항 국제여객선터미널을 찾아 항만보안체계와 여객터미널 세관검사·출입국관리·검역(CIQ, Customs Immigration Quarantine) 절차 등을 세심히 살피고, 부산과 일본 시모노세키를 운항하는 국제여객선 하마유호에 승선하여 선박의 안전관리 상황도 점검할 예정이다.

강 장관은 항만보안 근무자들에게 “우리나라 최대 항만인 부산항의 항만 보안과 안전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경비와 검색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고, 국제여객선 승선원에게는 “선박과 승객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KMI기념식>	해양정책관 해양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상길 (044-200-5220)
		담당자	서기관	고규환 (044-200-5221)
<항만점검>	해운물류국 항만안전보안과	책임자	과 장	윤두한 (044-200-5790)
		담당자	사무관	정재현 (044-200-5778)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